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6/10~6/16

불교전문서점 조계종출판사 불교전문서점 향전 제공 02)2031-20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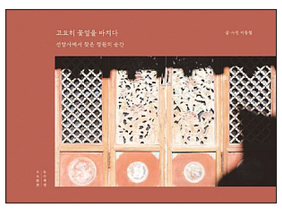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입보리행론 강의	달라이라마	불광출판사	6	원각경	김현준	효림
2	불교성전	불교성전편찬회	동국역경원	7	금강경(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김원수	바른법연구원
3	소설 금강경법회 수보리의 회상	고닐	북이랑	8	금강경 선물(컬러링 북)	박혜상	불교신문사
4	육조단경	김현준	새벽숲	9	이제서야 이해되는 법화경	원영	불광출판사
5	묘법연화경	광우, 정목	김영사	10	하루를 살더라도(법구경)	오원탁	불교시대사

불서총판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요가 디피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6	간화선	조계종 불학연구소	조계종출판사
2	뭐가 그리 바쁘노	경봉 스님	효림	7	티벳 스승들에게 깨달음의 길을 묻는다면	초펠 편역/게시 소남	하늘호수
3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사실이 있다	월폴라라훌라/이승훈	경서원	8	화 : 마음의 불꽃을 식히는 지혜	틱낫한/허우서,허주형	운주사
4	탁, 깨달음의 대화	법륜	정토출판	9	고요함의 지혜	에크하르트톨레	김영사
5	다시 여행을 시작하는 그대에게	덕조 글,사진	김영사	10	아사나 쁘라나야마 무드라 반다	사라스와띠	한국요가출판사

선암사 사계에 담긴 무위의 아름다움

〈無爲〉



고요히 꽃잎을 바치다

글·사진 이동협 / 목수책방 / 2만8000원

정원사의 선암사 자연 12년 기록

계절 따라 변하는 78종 식물 지도

"산사 정원은 순리와 무위의 공간"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봄을 맞아 선암사 대웅전 뒤 영산홍과 겹벚꽃이 활짝 피어났다. 사진 제공=목수책방

"그동안 본 정원 중 어디가 제일 좋아요?"

20여 년간 정원을 기록해 온 저자에게 사람들은 묻곤 한다. 정원에 대한 각자의 기준과 취향이 다를진대, 어디가 '최고'라고 줄을 세우는 게 가능키나 할까. 다만 꼭 가보라고, 계절마다 가보라고, 기차 타고 버스 타고 가보라고 소개하고 싶은 정원은 있다. 순천 선암사다.

〈고요히 꽃잎을 바치다〉는 저자가 12년 동안 기록한 선암사의 사계를 담은 책이다. 오랜 시간 정원을 바라봐 온 한 정원사의 시선으로 산사의 자연과 시간, 그리고 불교적 미학을 읽어낸다.

그런데 백제 성왕 5년(527년) 아도화상이 창건한 이래 법맥을 이어온 도량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선암사를 '정원(庭園)'으로 볼 수 있을까?

저자는 정원을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정의한다. 하늘과 바람과 비와 땅, 생물이 함께 끊임없이 협업해야 만들어지는, 살아 있는 생명이 주인공인 곳이라면 어디든 정원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자랑이나 욕심 없이 자연의 섭리에 맡기는 공간"이자 "관리와 지속 가능성을 걱정하지 않는 순리와 무위의 공간"이 바로 산사의 정원이라고 말한다.

책에 담은 선암사 풍경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간의 기록이다. 대중이 머물고 수많은 참배객이 드나드는 절이지만 도량의 일상은 배제하고 오직 식물과 풍광만 기록했다.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선암사를 둘러싼 풍경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절에 오르는 길이 넓어지거나 고목이 비바람에 쓰러지긴 했어도, 애써 외래종을 도입하거나 월동을 위한 보호 장치를 만드는 등 인위적 손길은 드물다. 계절의 흐름에 따라 그저 둘 뿐이다. 개인 정원은 주인의 감각과 성향에 따라 바뀌지만, '불멸의 부처님'이 주인인 선암사 정원은 자연의 섭리에 맡겨진 공간이기 때문이다.

책에는 선암사 초입부터 승선교를 지나 대웅전에 이르고 다시 조계산으로 오르는 길목까지의 풍경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담겨 있다. 절 구석구석에 자리한 동백나무, 금목서, 영산홍, 후피향나무는 물론 계절마다 꽃망울을 틔우는 매화와 철쭉, 불두화, 꽃무릇도 만날 수 있다. 일 년 열두 달 비슷한 듯 하지만 단 한순간도 같은 모습은 아닌 선암사의 풍경을 눈으로 훑을 수 있다.

책 뒤편에는 선암사 식물 78종의 목록과 위치를 표시한 지도가 정리되어 있다. 식물의 이름을 새기며 걷다 보면 발걸음은 자연스레 느려지고,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산사의 숨결에도 더 깊이 귀 기울이게 된다. 저자는 그런 느린 걸음이야말로 정원을 제대로 만나는 방식이라고 말하는 듯하다.

저자는 서문에서 "청정한 조계산의 산들바람을 맞으며 정원을 소요하는 마음으로, 낭만 정원사의 기록을 남기고자 했다"며 "이 책이 부처님께 바치는 내 나름의 '꽃 공양'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책을 지은 이동협은 조경학을 전공했지만 40년 직장생활 대부분을 방송사에서 보냈다. 대신 파주의 전원주택에서 정원을 가꾸어 온 29년 차 '정원 사랑꾼'이다. 6년 동안 천리포수목원의 사계를 기록한 〈정원 소요〉(2009)와 개인정원을 기록한 〈정원의 순간〉(2025)을 펴냈다.

행복에 이르는 여섯 갈래 길



명상, 다양하게 만나다

안광민·민미경·윤현준·김령경·여태동·박랑서 지음

도서출판 해조음

2만원

6가지 감각 통로로 명상 이해

현장 활용 가능한 실천 매뉴얼

한국숲과문학명상협회(회장 안광민)가 기획하고 협회 소속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집필한 명상 기반 통합 교재다. 명상을 특정 방법으로 제한하지 않고, 인간의 감각·신체·정서·인지 전반을 아우르는 다양한 접근을 통해 이해하도록 돕는다. 특히 명상의 효과를 단정하거나 과장하지 않고, 이론적 근거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서술한 점이 특징이다.

책에서는 맨발 걷기 명상, 싱잉볼 사운드 테라피, 웃음 클리닉, K-무용 명상, 문학치유 명상, 그림카드 내면 치유의 6가지 명상법을 소개한다. 몸의 움직임, 소리의 울림, 이미지의 상징, 언어의 표현은 서로 다른 방식처럼 보이지만, 결국 인간이 스스로를 인식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연결된다.

각 분야에서 10년 넘게 활동해 온 전문가들이 집필을 맡아,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천 매뉴얼을 담았다. 저자들은 건강을 삶의 파도 속에서도 다시 중심을 잡는 '회복 능력'으로 정의한다.

한국숲과문학명상협회는 2013년, 고 백원기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교수의 학문적 토대를 바탕으로 출범했다. 숲의 고요함과 문학의 깊이를 통해 '나'를 발견하고 스스로를 치유하는 힘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생활 밀착형 치유 콘텐츠를 개발하고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백원기 교수의 첫 기일(4월 27일)에 맞춰 책을 출간한 안광민 회장은 발간사에서 "한 사람이 남긴 사유와 실천의 흐름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하나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며 "이 책이 명상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를 제공하고 교육과 현장에 활용 가능한 지침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수령 기자

지금 왜 다시 '종교'인가



종교란 무엇인가

오강남 지음

김영사

2만3000원

종교학자의 종교 입문서 개정판

존재 근원 성찰 '심층 종교' 제안

한국을 대표하는 비교종교학자 오강남 교수의 〈종교란 무엇인가〉가 14년 만에 개정판으로 독자들을 만난다.

갈등과 배타의 벽을 넘어 '열린 종교'로 나아가야 한다는 이 책의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1부 '진리의 길'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믿음에 질문을 던지며, 삶의 근원을 붙잡는 진리를 탐구한다. 2부 '자유에의 길'은 문자주의를 넘어 내면의 신성을 발견하고, 의식의 전환을 통해 자유에 이르는 과정을 다룬다. 3부 '믿음의 길'은 교리를 넘어 '믿음' 그 자체를 살아내는 삶과 모든 경전 위에 놓인 '사랑'의 가치를 강조한다. 4부 '함께 가는 길'은 종교 간 대화와 상생을 통해 갈등을 넘어서는 길을 모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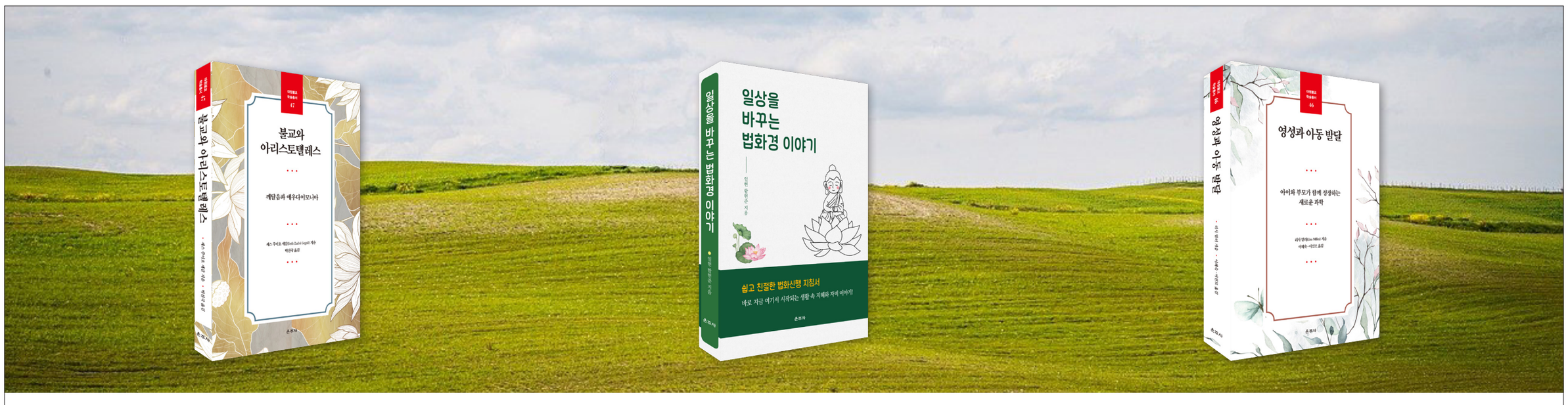
여기에 더해 저자는 개정판 부록 '심층 종교로서의 길목에서'를 통해 오늘날 종교가 직면한 위기를 직시하며, 교리와 형식에 갇힌 '표층 종교'를 넘어 존재의 근원을 성찰하는 '심층 종교'의 길을 제안한다.

저자는 오늘날 종교가 본래의 역할을 상실한 이유를 '표층적 사고'에서 찾는다. 일부 종교가 개인의 축복과 번영, 혹은 집단 정체성 강화의 수단으로 소비되면서 진리 탐구보다 자기 확신과 배타주의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세계 곳곳에서는 여전히 종교적 근본주의와 선민의식이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중동 분쟁과 미국 복음주의 정치화, 한국 사회의 극단적 대립 역시 이러한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평화를 말해야 할 종교가 오히려 혐오와 대결의 언어를 강화하는 현실에 대해 저자는 근본적인 반성을 요구한다.

저자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속히 진행된 탈종교화 현상을 분석하며, 제도 종교의 영향력은 약화되고 있지만 인간의 영적 갈증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고 진단한다. 오히려 불안과 고립이 심화된 시대일수록 인간 내면을 성찰하는 '심층 영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은 탈종교화에서 심층 종교화로 가는 길목"이라며 "허상으로서의 이기적 나를 버리고 내면의 참나를 찾아 참된 평화와 행복을 추구하는 종교로 나아가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수령 기자



불교 지혜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만남!

불교와 아리스토텔레스

동양의 불교적 '깨달음'과 고대 그리스 아리스토텔레스의 '에우다이모니아' 개념의 비교 분석을 통해 지금 여기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철학적 모색!

세스 주이호 세갈 지음, 박찬국 옮김/신국판/312쪽/값 22,000원

쉽고 친절한 법화신행 지침서!

일상을 바꾸는 법화경 이야기

법화경의 핵심 사상을 23개의 주제어, 즉 '지혜', '인연', '불성', '인과', '공덕', '보살행' 등의 개념으로 풀어내, 일상 속에서 내 마음속 부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이끈다.

함현준 지음/신국판/416쪽/값 25,000원

아이와 부모가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과학!

영성과 아동발달

불안한 시대를 이겨나가는 데 필요한 것은 내면의 힘이다. 따라서 과학으로 입증된 영성이 아이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과 삶의 회복력을 키우는 핵심 요소이다.

리사 밀러 지음, 이혜숙 · 이선모 옮김/신국판/528쪽/값 32,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